



류 간 성 (주)헤인이엔씨 회장

2006년 어항지 붐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으로는 (주)헤인이엔씨 류간성 회장을 만나본다.

류 회장은 1967년 공직에 발을 들여 우리나라 초창기 어항 개발을 주도했으며 이후 조선소 설계, 어항 및 항만 시공, 실시설계 등 40여년간 우리나라 해안 개발 사업을 이끌어 온 산증인이다.

그는 이 분야의 대표적 회사인 (주)헤인이엔씨를 이끌며 어항개발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어항 개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본다.

- 편집자주 -

-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엔지니어링 회사인 (주)헤인이엔씨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든 설계를 하는 일이든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바라보며 혹은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어항개발 초창기에 공직에 계셨고 이후 엔지니어링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어항 발전을 주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개발 사업을 짚어 주신다면?

제가 어항 업무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67년, 특채로 수산청 시설국 어항과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는 한·일 수교가 되면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어항 공사에 사용했고 이후 차관사업으로 변경, 수산청에



서 30여개의 1·3중 어항(현 국가어항)을 직접 투자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하였지요.

5년간 계획계(計劃系)에서 근무하면서 어항계획, 조사, 설계, 검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초기 개발하였던 모든 어항에 관여를 하였지요.

초창기 사업이라 모든 조건이 열악했습니다만 어항개발이 당시 어업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특히 어업전진기지였던 도서 지역 3중어항을 개발하여 동력화가 되지 못했던 우리 어선들이 근해까지 나가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조업률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 1991년에 엔지니어링 업체로 오면서 강원도 안목, 대포항을 비롯해서 최근에 도장항, 사동항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어항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정비계획 등을 하며 우리나라 주요 어항개발에 관여했습니다.

- 어항 설계에 있어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초창기에는 어항의 설계에 대한 기법이나 자료가 거의 없었지요. 일본 책자를 보고 기준으로 삼아 설계를 하곤 하였지요.

조사수준도 조악하여 지금은 음향측심기 등 우수한 장비를 이용합니다만 당시 수심이나 파랑 조사를 할때면 배를 타고 나가 실측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조사를 완벽히 수행하고 컴퓨터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1975년 항만설계기준이 처음 만들어 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어항시설 측면에서는 일본 다음은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어항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기능시설 위주로만 어항개발을 할 시기는 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개선이나 정비, 다른 시설의 첨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특히 어촌인구가 줄고 노령화 되는데 대비해서 생력화(省力化) 내지는 자동화하는 쪽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항이라는 곳은 어업인들이 사는 생활근거지인 만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차피 어획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고 밀려드는 수입수산물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

에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어항 구역에서 신속하게 상품화하여 선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어항 시설의 기능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해양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오수 정화시설 등 항내 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최근 다기능 어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기능어항이란 적절한 시설들을 어항에 설치함으로써 단순히 어획물의 양육과 어선의 안전 보호라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어항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는 취지지요.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다기능 어항은 주로 관광 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각 어항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게 개발하여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모든 항을 일률적인 관광어항으로 만들 수는 없고 각 항마다 특성을 살려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일본처럼 어항 기능시설이나 인근 해양공원의 운영에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관광 관련 시설들을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어항 내 관광 시설들을 설계에 반영할 때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며 특히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어촌어항시찰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어촌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어촌에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도입, 어촌의 정화 정비를 이루고 해수 친수 레저 시설을 가미하면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브라이트나 프랑스 노르망디처럼 농어촌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어촌의 특성에 맞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어촌·어항법이 지난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부분적으로 저의 소견과 같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항의 영역을 바다와 인접한 육지부의 수산시설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한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어업인들의 생활근거지로서의 어항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촌과 어항을 연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 한국어촌어항협회에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어촌·어항법이 발효되면서 어항 발전에 있어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역할이 막중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나 협회내의 연구실은 어항설계나 계획에 기초가 되는 통계 및 기초조사 자료의 축적, 어항 정책의 개발 등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플로리다 같은 경우 40년전부터 해안 변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조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의 경우 설계기간이 보통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계절 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필요한 조사는 협회가 담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은?

저는 40여년에 걸쳐 항만에 관련하여 임해 공업단지, 상업항, 어항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접할 기회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양수산부 일각에서 어항업무와 상업항 업무를 통합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항과 상업항은 계획에 있어서 기본 컨셉(concept)이 다르고 또 최종 사용자(user)가 다릅니다. 따라서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항은 수산이나 어업인 생활, 어촌 지역경제 등도 같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 개발의 주체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헤인이엔씨 류간성 회장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전신인 한국어항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협회 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류 회장은 40여년간 항만 및 어항 개발 분야에서 재직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 실력파로 평가받고 있다.

경영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 98년 설립 당시 25명이었던 직원 수를 180명으로 늘렸고 엔지니어링 회사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등록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